

권태경 (총신대학교 역사교육과)

-안드류 멜빌(Andrew Melville)의 교육사상

시작하는 말

1560년 존 낙스의 종교개혁으로 스코틀랜드에 개신교 신앙과 예배가 허용되었고, 이후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를 국교로 하는 국가 교회가 되었다. 이점에서 우리는 낙스를 장로 교회의 창시자라는 오해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낙스 이전에 이미 유럽에서 마틴 부처가 장로교 제도의 기초를 놓았고, 존 칼빈이 장로교 제도의 이론을 발전하는데 기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종교개혁 1세대인 칼빈과 부처, 그리고 낙스에게 교회 제도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인 관심이었다. 스코틀랜드 상황에서 보면, 1560년 낙스에 의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와 <제1치리서>가 만들어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배 의식과 미사가 철폐되었지만, 장로교 제도의 정착은 낙스의 후계자인 안드류 멜빌에 의하여 장로교회가 국가 교회가 되었다. 그러므로 낙스가 아닌 멜빌을 교회사에서 장로교 제도의 창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종교개혁시기인 1560년부터 1575년까지는 스코틀랜드의 교회는 낙스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낙스의 개혁 사상에는 반 교황적인 교리적인 성격이 강하다. 낙스의 개혁시기에 교회 조직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즉 장로제와 감독제에 대한 교회 정치의 문제였는데, 낙스는 이 두 교회 제도의 논쟁 속에 하나의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교회 제도의 차이가 있어서 양자를 절충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다. 스코틀랜드에서 1575년경 로마 카톨릭 제도에 대한 투쟁은 성공하였지만, 장로제와 감독제의 차이와 갈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새로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575년 멜빌은 순수한 장로제의 정치제도를 스코틀랜드의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하였다. 이것을 스코틀랜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며, 이로써 낙스의 교회가 아닌 멜빌의 교회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멜빌은 스코틀랜드 제2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멜빌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함에 있어 교회 제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문주의 교육에 대한 멜빌의 관심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에 제1장에서는 멜빌의 이미지와 생애를 다루고, 다음으로 멜빌의 인문주의에 대한 관심과 그의 교육 사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멜빌의 인문주의와 교육 개혁안 그리고 그의 개혁 사상이 스코틀랜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드러내하고자 한다.

1. 멜빌(Andrew Melville)의 생애

안드류 멜빌은 (Andrew Melville)은 스코틀랜드 발도니(Baldovy)에서 1545년 8월 1일 출생했다. 그는 1559년 세인트안드류 (St Andrews)대학교의 세인트 메리 대학 (St Mary)에 입학했으며, 1564년 가을 19세가 되던 해 프랑스로 갔다. 카톨릭 신앙을 요구하는 당시 대학의 분위기 때문에 그는 파리 대학을 떠나, 1566년 푸아티에 (Poitiers)로 갔다. 그러나 당시 프랑스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신앙적인 갈등으로, 프랑스에 있을수 없어서 멜빌은 제네바로 갔다 . (McCrie xi, 2, 6, 8, 10, 13, 14, 15). 당시 제네바에는 베자(Beza)가 있었는데, 베자는 멜빌이 제네바에 온 것을 환영했다. 칼빈 사후 베자는 제네바에서 종교개혁기의 리더자였다. 1568년 멜빌은 제네바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5년 정도 체류하면서 당대 학자들 그리고 개혁자들과 교류하였다. 개혁자 낙스가 목사, 설교자, 복음주의자의 이미지가 있는 반면, 멜빌은 학자와 교사로서의 합리적인 사고가 강한 이미지가 있다. (Hall & Hall, 245). 멜빌은 1574년 봄에 제네바를 떠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7월에 도착하였다. 이당시 멜빌이 귀국하여 관심을 가진 것은 장로교 정치 제도가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 스코틀랜드의 대학 교육을 발전시키려는 것이었다. (McCrie, 25, Morison, 16-17; Dictionary of Scottish Church History & Theology, 556). 멜빌은 1574년-1580년 동안 글라스고(Glasgow) 대학교의 학장(principal)으로 임명되었다. 당대 스코틀랜드의 대학교에는 헬라어, 수사학, 도덕철학, 논리학, 형이상학, 자연철학, 신학등을 강조하는 분위기였다. (배광식, 144). 멜빌은 교육 개혁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당시의 논쟁이 되는 교회와 국가의 문제에 대하여서도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주장하였다. 즉 왕의 종교정책인 감독제에 반대하여 멜빌은 1607년부터 1611년까지 런던 타워에 수감되었다. 그 이후 멜빌은 1611년 4월 11일 프랑스 스당(Sedan)으로 갔으며, 스당에서 1622년 (77세) 죽을 때 까지 성경 신학을 가르쳤다. (Dictionary of Scottish Church History & Theology, 557, Morison, 110, 114)

멜빌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그의 <제2치리서>에 나타난다. 종교개혁의 성취로 낙스의 개혁 문서인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1560>와 <제1치리서, 1560>가 스코틀랜드 교회사에서 중요한 토대를 제공했지만 체계적으로 정립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에 멜빌이 <제2치리서, 1578>를 작성함으로써 낙스의 <제1치리서>를 보완하게 되었다. 낙스와 그의 동료들이 만든 <제1치리서>도 교육사 측면에서 보면 다른 개혁가와 달리 혁신적인 교육상인 보편교육을 주장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내용을 보면, “동네 교회마다 문법과 라틴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을 필요로 한다. 일주일에 한번 산간 지방에 설교를 듣는 자들 위해 강독자나 설교자를 임명해두고, 교구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초보적인 지식 특히 교리문답을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큰 도시에는 고등학교를 세워 교사들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지급하고, 최소한 논리학과 수사학 여러 언어 등 인문학을 가르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재정적으로 교육 받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은 학문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유의할 바는 어떤 아버지도 자녀를 자기 기본대로 기르면서 자녀들의 머리에 엉뚱한 생각을 불어넣어서는 안된다. 부모들은 교회의 통제하에 그들의 자녀를 가르치고 교회와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헌신해야 한다. 학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난해서 학문을 그만 두어서는 안되고, 교육을 통해 인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보이드, 259)

낙스의 이러한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스코틀랜드에 실현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낙스의 그의 교육 철학은 혁신적이기는 하였지만,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낙스의 교육 개혁안은 멜빌에 의하여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구체화 되었다. 낙스의 <제1차리서>보다 더 구체적인 멜빌의 <제2차리서>는 전체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5장에서 멜빌은 ‘교사와 박사직’ (Teachers or Doctors)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박사’는 대학에서 성경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 학교의 업무를 관장하고 종교의 문제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SBD., XII. 5) 여기에서 언급하는 ‘박사’ 혹은 ‘교사’의 직무에서 말하는 ‘교사’는 예언자, 주교, 장로, 교육자를 말한다. 이들은 신학 교수로서, 목사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말씀의 메신저의 역할을 한다면, 박사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다.’ (Kirk, SBD commentary, 84)

멜빌에 의해 1578년에 작성된 <제2차리서>는 1592년에 의회에 합법적으로 공인되면서, 장로주의 핵심이 되는 노회제도 논의가 정립되었고, 결국 장로교회의 정치헌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점이 멜빌이 교회의 역사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였다. 교회 정치에서 멜빌의 <제2차리서>가 흥미로운 것은 <제1차리서>가 치리장로의 임기를 1년으로 투표를 통해 재선은 가능하나 3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제2차리서>는 장로직을 목사직과 같이 평생직으로 규정하였다.(배광식, 147). 결국 낙스의 종교 개혁과 멜빌의 장로교 제도의 교회개혁으로 1592년 스코틀랜드에 장로교가 국교로 되면서, 장로교회 역사에 가장 대표적인 신앙고백과 예배모범이 1640년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채택되어졌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예배모범은 스코틀랜드의 낙스와 멜빌의 이론적 기초에 있었고 스코틀랜드 대표 사절단인 사무엘 루터포드와 스코틀랜드의 언약파와 장로주의자들,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2. 멜빌의 인문주의와 교육 개혁

멜빌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인문주의에 대한 그의 관심과 유럽 대학에서 경험한 인문주의자로서의 교육 그리고 귀국 후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인문주의 교육 커리를 적용하는 개혁안은 멜빌의 이미지를 교회 개혁가에서 교육 개혁가로 면모를 알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멜빌이 1545년 태어날 당시 스코틀랜드의 대학은 세인트 안드류, 글라스고우, 올드 아버딘(Old Aberdeen)만 있었고, 이후 에딘버러와 새아버딘(New Aberdeen) 대학이 설립되었다. 설립된 스코틀랜드의 대학내에 에라스무스와 뷔데(Guillaume Bude)의 영향으로 인문주의가 대두하였다. 부카난(Buchanan)의 제자인 멜빌은 초기 인문주의에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었다. 이러한 인문주의는 1560대와 1570년대 프랑스와 스위스에 강하게 나타난 인문주의였다. 292-293. 멜빌이 공부하던 시기에 스코틀랜드에 학자들도 그리스어를 읽지 못할 정도로 그리스어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멜빌이 죽을 당시 스코틀랜드의 대학에서 그리스어가 중요한 과목이었는데 그 이유가 멜빌이 글라스고우와 세인트안드류 대학에서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었다. 1620년 ‘아버딘의 박사’로 알려진 포비스(John Forbes)가 킹스 대학에 신학부 교수로 임명되는 것도 스코틀랜드의 대학에서 그리스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Holloway, 292).

멜빌이 스코틀랜드의 대학의 교수와 학장으로 재임시 대학들은 그리스어 수사학 도덕철학 논리학 형이상학 자연철학 그리고 신학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멜빌은 대학에 새로운 교육 방법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라무스주의를 소개하였다. 멜빌이 유럽에서 유학하는 동안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프랑스 논리학자이며 교육철학자인 라무스(Peter Ramus, 1515-1572)이다. 피카르디 지방의 농장일꾼으로 태어난 라무스는 파리 대학에서 공부했다. 그는 이 대학에서 요한 슈트룸의 강의를 청강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다 거짓이다”는 주장을 피력함으로써 맹목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종을 스스로 거부하였다. 그가 원하는 것은 중세의 권위를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에서 자유롭게 사고하는 것이었다. (윌리엄 보이드, 281). 라무스는 학문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공리주의자이다. 그에 의하면, 교육의 내용은 원래의 의미에서 기술의 총체이다. 문법은 정확한 담화의 기술이며, 수사학은 정확한 언변의 기술이며, 변증법은 정확한 입론의 기술이다. 이러한 교육을 현실의 삶과 관련하려면 새로운 교육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그가 말하는 새로운 교육 방법은 전통적인 3과를 거부하고, 4과에 관심을 두는 것을 말한다. (보이드 281-82)

라무스는 중세 학문의 전통인 스콜라철학을 비판하는 글을 발표함으로써 그의 저작들은 금서목록에 오르게 되었고, 르네상스 시기의 우상이었던 키케로등을 비판한 글을 발표함으로써 격렬한 논쟁에 휩싸이게 된다. 그리고 1561년 신교도에 대한 탄압이 거세어 지는 상황에서 스스로 신교도임을 고백하여 자신을 후원하던 카톨릭 추기경이나 후원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결국 1572년 성 바르톨뮤 대학살 때 자객들에 의해 살해당한 후 센강에 버려진다. (이화인문과학원, 132, 이영훈, 187). 라무스의 교육 개혁안은 당시 지식인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실제로 라무스는 교육 개혁안에 구체적으로 교양학의 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당대 3학문인 문법 수사 논리학 중에서 논리학에 주력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의 중세 스콜라주의에 대한 비판과 관계가 있다. 또한 라무스는 대학에서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과정을 가르치는 이전의 방

식에서, 전공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새로운 교수법을 채택하였다. 멜빌의 영향으로 대학의 커리가 혁신적으로 변경되었는데 즉 대학 교육 커리에서 새로운 형식의 라틴 문학, 그리스어, 르네상스 철학, 수학, 지리학, 물리학, 세계사,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칼빈 신학을 가르쳤다. (Howell, 147; 김경식, 8-9),

멜빌은 교회 개혁가이지만, 1574년 스코틀랜드로 귀국한 후 교육 개혁가로 면모를 드러내었다. 대학 교육 개혁안으로, 글라스고 대학에서 멜빌이 시도한 교육 방법이 아버딘대학과 세인트안드류 대학에 영향을 미쳤고, 이제 스코틀랜드의 대학에서는 새로운 라틴 문학, 헬라어 르네상스 철학, 수학, 지리학, 물리학, 대학사, 히브리어, 아람어, 칼빈의 신학이 강의 되었다. 인문주의의 영향으로 멜빌의 교육 개혁은 학문의 중심에 성경 원어인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가 있었고, 플라톤 철학을 강조하였다. 맥그리(M'Grie)에 의하면, 당대 멜빌이 구상하는 개혁 커리큘럼은 당시 대학에서 시행한 가장 최상의 학문 방문이라고 하였다. (Reid, 48 ;Morison, 20).

그는 세인트안드류에서 문학을, 파리 대학에서는 라무스(Peter Ramus)하에서 철학을, 푸아티에서는 법학을, 제네바에서는 베자하에서 신학과 교회제도를 배웠다. 멜빌은 제네바 아카데미의 초급 과정에서 인문학을 가르쳤다. 1577년 멜빌은 교육 개혁가로 자신의 교육 비전을 담은 '새로운 기초'(Nova Erectio. 이후 NE)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기초'는 스코틀랜드의 대학 개혁안의 기초가 되었다. 글라스고 대학에서 NE는 중세 커리큘럼에서 근대 기독교 인문주의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NE는 문학 학위 과정의 내용을 말하고 있으며, 고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신학 전공 전에 교양(arts course, 인문학)에 3년 반이 필요하고, 히브리를 공부하는데 4년을 요구하였다. 고전어인 헬라어와 라틴어이 중요과목이었다. 연구 방법은 강의와 읽기, 논쟁, 암기등이었다. 모든 학생은 등반을 할 경우, 학장이 등반을 허락하는 문서를 발급하게 되어있다. (Whytock, 36-37). 멜빌의 인문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스코틀랜드 대학에 교육 개혁안을 도입하고 교육의 혁신적인 안을 실천한 면은 서양 교육사에서 멜빌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맺는말:

스코틀랜드의 교회의 역사에서 1560년 닉스의 개혁이후 스코틀랜드는 1575년부터 1690년 까지 장로제와 감독제의 논쟁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즉 감독제가 1584년에, 장로제가 1592년, 감독제 1610년, 장로제 1638년, 감독제 1661년, 장로제 1690년에 지배적이었다. (Provand, 53; Donaldson, 75) 브라운(Hume Brown) 교수의 지적대로 “유럽 개신교의 역사에서 칼빈주의가 득세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스코틀랜드에 장로제는 동일한 승리의 의미를 지닌다. 닉스가 메리 여왕에 대하여 승리 한 것처럼, 멜빌은 스코틀랜드의 교회의 역사에서 장로제를 쟁취한 것이다. 멜빌의 개혁은 스코

틀랜드의 교회사에서 감독제를 거부하고 장로교의 모델을 정착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멜빌이 스코틀랜드의 개혁의 선구자이며, 장로교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Campbell, 1; Provand, 54)

스코틀랜드는 1575년 멜빌의 제2의 종교개혁으로 낱스의 교회가 아닌 멜빌의 교회 시대가 열린 것이다. 멜빌의 교회는 스코틀랜드에 개신교 성향의 청교도주의를 발전 시키는데 기여한 인물이었다. 멜빌의 유럽에서 인문주의 교육 경험과 스코틀랜드에서 대학을 중심으로 보여준 구체적인 그의 교육 개혁안은, 멜빌은 교회의 역사에서 이제 장로교 제도를 확립한 교회 정치가 그리고 대학 교육 개혁에 혁신적인 교육 사상을 도입한 개혁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멜빌의 인문주의에 대한 대학 교육 개혁안이 의미를 갖는 것은 교회 개혁자이며 정치가인 멜빌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대한 비판적인 논쟁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중세 로마 카톨릭의 학문 방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인문주의에 대한 새로운 학문적 관심을 강조하고 그 안을 구체적으로 대학에 혁신적인 안으로 제시한 점에서 우리는 멜빌을 개혁적인 교육혁신가이며 교회 정치가라고 할 수 있다.